

순천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발족

순천시청 20개부서 팀장 26명 문화도시 사업 협력체계 구축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박차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 순천시가 2021년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17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발족했다.

행정협의체는 순천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순천시청 20개 부서 26팀의 팀장과 순천문화도시센터의 지원 구조로 꾸려졌다.

이날 발족식은 언플러그드 아고라 공연을 시작으로 생태문화도시 실천 선언문, 순천시 문화도시 사업 브리핑, 문화도시 전문가 특강, 출범 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생태문화도시 실천선언은 순천문화도시센터가 시민들과 함께 생태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4개 항목으로 만든 것으로, 시민·공무원·활동가·어린이 대표 등이 참여해 릴레이 방식으로 선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문화도시 전문가 특강은 문체부 문화도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장세길 박사를 초청해



순천시는 문체부의 내년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지난 17일 문화도시행정협의체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순천시 제공>

문화도시의 개념과 행정의 역할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시는 행정협의체 발족식을 시작으로 순천문화도시센터와 함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 행정력을 결집해 법정 문화도시 지정과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업과 연계 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영역에서 각 부서 의견 수렴과 협의 등의 역할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2022년까지 총 30개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다. 문화예술, 문화산

업, 역사, 전통 영상 등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로 지속 가능한 도시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최대 100억원 등 총 200억원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순천시는 2019년 예비 문화도시로 승인받아 현재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행정협의체가 발족한 만큼 간막이 없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내년에 지정 예정인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중 기자 ejkim@

곡성군, 장애인 위한 반다비체육센터 내달 착공

66억 들여 곡성읍에 3층 규모 운동처방실 등 다목적 활용



곡성군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반다비체육센터(조감도)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곡성군에 따르면 18일 현재 곡성군에는 3303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곡성군 인구가 2만7835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11%에 달한다. 그런데도 곡성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체육문화시설이 미비해 장애인들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민선 7기 들어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오는 9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10월부터는 장애인들이 마음껏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 반다비체육센터는 곡성읍에 연면적 1992㎡,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총 66억5000만원으로 국비 30억원과 군비 36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지상 1층에는 휴게라운지와 로비, 전통월채어 충전 공간을 비롯해 체력단련실과 운동처방실이 들어선다. 이용자들은 운동처방실에서 정밀 체력 검사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을 처방받

을 수 있다. 시청각 교육실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상 2층에는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가족 샤워실이 핵심 시설로 들어선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선 보치아,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고 가족샤워실에선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운동으로 흘린 땀을 씻어낼 수 있다.

3층은 옥외 활동 공간으로 미니 론볼(Lawn Bowling)장이 설치된다. 론볼은 잔디 경기장에서 표적이 되는 공에 자신의 공을 근접시키는 방식의 경기로 장애인들이 즐겨하는 대표적인 운동이다.

곡성군은 현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와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를 마친 상태다. 일일감사와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오는 9월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할 예정으로 기술 심의 등 중요한 과정들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보성 정원 3곳 전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 수상

별교읍 '징광문화정원' 대상 '골망태'·'선유원' 2곳 우수상

고 산림청장이 후원한다. '아름다운 정원 함께 나뉘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테스트에는 개인 주택 정원과 카페·음식점 등 근린정원 32개소가 응모했고, 8개의 정원이 예쁜 정원으로 선정됐다.

보성군은 전남도에서 주최한 '제2회 전라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에서 별교읍 '징광문화정원' <사진>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상을 수상한 징광문화정원 뿐만 아니라 보성군에서는 골망태, 선유원 등이 예쁜정원 우수상을 수상해 총 3개의 정원이 예쁜정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대상 수상한 징광문화정원을 방문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꾼 노고를 격려했다.

전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는 전남도가 주최하

고 김철우 군수는 "1000만 그루 도시숲 조성을 목표로 명품길 조성 등에 노력해 왔는데 예쁜정원에 보성군 정원이 3개나 이름을 올리게 돼 기쁘다"면서 "아름다운 정원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보성군에는 조암정원, 갈멜정원, 성림정원이 전남도 민간정원으로 지정·관리되고 있고 명품길 조성 사업으로는 보성 다향이십리길, 오봉산 생태길, 보성강 배롱나무길 등이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 5일시장 점포 141곳 자동 화재 알람 시설 설치

구례군이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구례5일시장 점포 141곳에 화재 알람 시설을 설치했다.

화재 알람 시설은 화재 발생 시 무선감지기가 화재 원인을 감지해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동시에 점주 및 시장 관리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구례군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했으며 국비 포함 예산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연기·열·불꽃을 감지하는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했다.

구례군과 소방서, 상인회 관계자들은 감지시설 시연을 통해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화재 알람 시설을 정상 운영 중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전통시장은 점포 간 공간이 좁고 통행로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불이 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시 중앙동,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여수시 중앙동 주민들이 지난 17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8가지 색깔의 배너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성공 기원기 릴레이 전달식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성공개최! 성공개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여수시 중앙동 주민들의 합성이 울려 퍼졌다.

여수시 중앙동주민센터(동장 김성준)는 지난 17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기원기를 총무동으로부터 전달받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 총무동-중앙동 실천본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참석자들은 8색 16개 배너기를 한자씩 흔드는 퍼포먼스로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힘찬 구호 제창으로 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행사를 지켜보던 김현이(60세·웅천동) 씨는 "뉴스로만 들던 시민운동을 눈앞에서 직접 보니 시민들의 열기를 알 것 같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강용명 섬섬여수 중앙동 실천본부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여수시민의 열기로 완성되는 축제"라며 "남은 기간 동안 이 열기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